

[글 자료] 세월호 참사, 그 이후의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

공현 _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우리 사회가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도 있었을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람들 각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도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들이 유독 많았고 눈에 띄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중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기 때문이다. 음모론적 접근이든 신중한 접근이든 참사의 원인 분석에서부터 해결을 촉구하는 동기 혹은 제안되는 해법에까지 두루 거론되곤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하면서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론되는 것을 보다보면, 우선 그런 논의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정을 “아이들이 미안하다”라는 구호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조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은 사건이다.”라는 규정, 유가족을 ‘자식 잃은 부모’로 그리는 모습, 1년 뒤 수능시험일이 오자 나오는 여러 말들, 더 나아가서 “세월호 참사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라는 분석(참사로 죽은 것 대다수가 비청소년들이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교육은 어른의 말이다.”라고 하며 세월호 참사를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어느 대학 교수진의 스승의 날 성명 등... 심지어 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살아남은 학생들은 대개 모범생/우등생이 아니라고 하더라, 어른들 말을 잘 안 듣는 학생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같은 카더라 분석(?)마저 들은 적이 있다.

세월호-청소년 논의의 과잉이 정점을 찍은 것은 ‘4.16 교육체제’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꺼내들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다. 5.31 교육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체제가 4.16 교육체제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교육체제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4.16 교육체제를 ‘일등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꽃피우는 교육이라고 했으며 고교서열화 극복, 학교혁신, 학교민주주의 등을 과제로 열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연 4.16 교육체제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서두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한 교육〉,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사를 잊지 않는 일이고, 또 교육적인 치유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한 발제자는 4.16 교육체제의 모델학교는 혁신학교이며 핵심 가치는 협력과 협동이라고 했다. 뭐, 다 나쁠 것 없는 주장인데, 문제는 그게 왜 ‘4.16 교육체제’냐는 것이다. 솔직히 그 각론들을 보면 그동안 교육운동이 해오던 주장과 논의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것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굳이 이런 예들을 문제인 것처럼 열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세하게 따진다면 각각의 이야기들의 문제점을 따로 논해야겠지만, 크게 봐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지배적인 청소년관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을 피해자의 위치에, 비청소년을 책임자·권력자·주체의 위치에 놓는다. 물론 양적으로 따진다면 청소년들보다는 비청소년들이 현재의 사회 체제에 대해 조금 더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집단에게 사회적 책임이 더 있는지 재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구도와 맥락이다.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간주한다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세월호 참사를 마치 청소년 또는 교육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참사를 바라보는 초점을 흐린다. 비청소년과 청소년이라는 구도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간과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고, 그 결과물 중 일부는 간혹 등장하는 아전인수격의 해석들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는 청소년들을 삶의 주인으로 하자거

나 학생들을 존중하자거나 하는 말들도 비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려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옳고 그름이나 바람직함의 여부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겠지만, 그런 청소년에 대한 논의의 밑바탕에는 어떤 동기, 어떤 감정이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이 당혹감과 무력감이었다고 하면 좀 과한 것일까? 수백 명이 죽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쩌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필요로 했으며,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해답을 원했다. 4.16 교육체제라는 명명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교사/교육청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 못되게 말하자면 알리바이를 만들며 안심하기, 좋게 말하자면 무력감을 피해서 뭐라도 해보려는 시도. 세월호 참사 앞에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는 현상은 마치 뭐라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리를 보여주는 것만 같다.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없다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과잉되어 있는 와중에, 내가 그 모든 것이 문제이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 중에도 의미 있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대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여러 모습들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들이다. 가령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추모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나 하라고 다그치는 학교의 모습 같은 것들 말이다. 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애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교육부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표현과 행동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사례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과 함께 세월호 참사가 정부로부터 어떤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이 이것은 순수한 추모 및 애도일 뿐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한계를 드러낸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몇 십 년 동안 그래왔고, 청소년만이 아니라 비청소년들도 양상은 다를지언정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경제나 소비 심리를 말하며 세월호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하고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집회나 시위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동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만의 문제는 없다.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우리 사회가 보여준 슬픈 문제들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현상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왜 고등학생들이 죽었는가?”를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왜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묻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그 현상을 메타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그려내고 어떤 역할로 소환하는지를 말이다. 그런 그림 속에서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청소년들(유가족, 친구, 생존자 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이후의 발제에서 좀 더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자.)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어난 추모나 진상규명 요구 투쟁 속에서 청소년의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실제로 투쟁에 참여한 분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아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테지만,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나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이 출산·육아의 경험이 있는지 ‘부모’인지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곤 했다. 부모인 이들은 ‘아이들의 죽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투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정서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왔는지

이야기할 때 청소년의 존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나 같은 사람들이 가족주의 내지 청소년보호주의의 냄새를 맡는 것도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또한 김현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아이들’이라는 기표에 대해서 그것이 전쟁의 관점으로 연결될 위험성, 국가주의 속에 배치된 그 상징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기표가 국가주의에서 수행하는 독특한 기능을 상기하도록 하자. … 모든 정치 세력은 이 기표를 전유하려 애쓴다. 세월호에 아이들을 빼앗긴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독재자는 아이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 …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인 애도가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일반인들’이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을 때뿐이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안타까운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쟁의 관점이다. 전쟁은 공동체의 심장과 손발, 살아남을 사람들과 희생될 사람들을 나누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점점 전쟁을 닮아 간다. 하지만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재난에 대처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에 앞서 전쟁의 관점 자체와 단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경, *오늘의 교육* 21호, 「‘아이들’이라는 기표 -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제까지 그럴 여유는 없었고 앞으로도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럴 여유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다면 세월호 운동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해결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낳고 있는 ‘효과’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청소년/아이들”을 부르는 일이 어찌면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일은 아닌지, 인권의 보편성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가족주의적 관계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등장한 청소년에 대한 과잉된 논의들을 치워내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논의로 그런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다. (끝)

[지정토론1] 변 _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 혹은 ‘아이들’이라는 기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청소년 운동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기호들은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맥락으로 여전히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며 ‘미래’나 ‘희망’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을 통해 끊임없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청소년 운동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높은 벽을 실감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최근까지도 있어왔지만 적어도 운동 사회 안에서만큼은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이라는 기표가 표현되어지는 방식에 대해 그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맥락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더더욱 우려할 만하다고 본다. 발제자가 인용한 김현경의 글을 다시 되새겨 말하자면 사건 당시 세월호의 선장이 ‘아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잊은 것은 보수적 세계관 안에서 ‘아이들’이라는 기표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이들’ 그 자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빨갱이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는 말에서 읽어야 할 것은 그들의 진짜 바람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목적과 배치될 때 ‘아이들’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기표일 뿐이다.

사건 이후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넘쳐날 때도 ‘아이들’이라는 기표는 정작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마치 위험은 언제나 존재했고 방법은 피하거나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식의 대처는 공적 책

임을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정권의 고전적인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오히려 보호를 명목으로 한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늘의 논의는 세월호 이후에 진보 진영이 ‘아이들’이라는 기표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다분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다. 지켜내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의 현실적인 무기력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의 정치적인 무기력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공동체적 친밀감, 좁혀 말하자면 가족적 친밀감을 이 운동의 계기로 삼아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분명 부모는 ‘가족주의’라고 불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고 과장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거대하고 추상적이라 다가서기 쉽지 않은 폭력적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무력하게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중적인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관계인 동시에 가장 강한 추동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반이며 가족주의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걸까? 아니면 ‘청소년’이라는 기표를 재생산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가족이 결국 이 운동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걸까?

[글 자료2] '세월호 참사 속 10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호연 _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1. 작가기록단이 '참사 속 10대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 이유

작가기록단은 <금요일엔 돌아오렴> 출간 이후,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회에 전해야 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가, 피해자 중 누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못했는가,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더 듣기 힘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작가기록단은 <금요일엔 돌아오렴> 기록 작업을 하면서 희생학생들의 형제자매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 북콘서트에서도 부모들은 떠난 자녀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형제자매를 잃은 고통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걱정으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주위 사람들의 태도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형제자매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부모들을, 주위를 보살피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습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75명 생존학생들의 경우, 아직까지 간헐적인 언론 보도와 부모 인터뷰를 통해서만 그들의 상황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2015년 상반기 '416 연대'가 주최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생존학생들이 현재 어떤 고통에 직면해 있는지가 조금 알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 와중에도 생존학생들이 희생 학생들의 생일모임이나 친구들이 있는 추모공원에 계속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생존학생들 중에 희생된 친구의 부모님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때로는 자신들의 존재가 세상의 관심에서 잊히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그 누구보다 세월호의 진실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학여행에 가지 않았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바람은 아예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세월호 가족들이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10대들의 아픈 현실에 공감과 분노를 표현해 왔다. 희생학생 형제자매들과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가 대체 무엇이었는가를 '다르게,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 사회의 10대들이 처한 처지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10대 피해자들이 말을 할 수 없거나 어렵게 된 경험의 순간들

1) 10대 피해자들은 구조과정과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과정에서 청소년을 대하는 사회의 폭력적 태도를 언론, 정부, 학교, SNS 등 여러 사회적 공간에서 경험했다.

- 생존학생들은 구조과정에서도, 구조 직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도, 병원과 연수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도, 학교생활에서도, 인터넷 악플 러쉬 속에서도 10대 피해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게다가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의한 통제도 강화되어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호’를 명분으로 한 통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함부로 대해서도 괜찮은 약자’에 대한 무시가 있어 왔다.¹

- 희생자 형제자매의 경우, 세월호 참사에 무관심한 학교, 인터넷 악플,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유가족들이 모욕을 받는 상황들을 경험했다.

2) 비청소년들에 의해 10대 피해자들은 대변/해석/진단/치유되는 존재로 위치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주체적인 ‘사회적 화자’이자 증언자가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3) 10대 피해자들 중에는 부모의 반대에 막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포기를 하거나 부모를 먼저 걱정해서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반대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은 채 자신의 의사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 작가기록단이 만난 희생자 형제자매들, 특히 10대들은 부모들과 진도체육관, 도보행진, 서명받기 등을 같이 다니고 참여 의사를 보였을 때 존중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반대가 있었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이 그 반대를 설득하거나 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상황이기도 하다.

- 10대 피해자들 중에는 부모가 원하지 않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해 점점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할 마음이 없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작가기록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고 있다.

4)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는 문제

- 피해자의 고통이 현재진행형이고 피해자들의 요구가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말의 무력감을 느끼고, 기억을 재생하는 것의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0대라는 위치로 인해 겪은 경험들이 무엇을 말 할 수 있고/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로 비청소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록되지는 않은 편이다. 비청소년들의 목적에 따라 구성된 질문에 답하는 경우여서 발화자는 나이지만 ‘나의 이야기’를 한 느낌을 받지는 못한 듯하다. 짧은 일시적 만남 속에서 질문에 간헐적인 답을 하는 과정이었던 발화의 경험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미화 되지 못한 채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정도로 남아 있기도 하다.

5) 자신의 서사와 사회적 기억을 만들기 위한 질문과 앞의 과정

- 참사를 겪은 10대 당사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알고 싶다는 것과 알고 싶지 않다 사이에 놓여 있곤 한다. 하지만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클 때가 많다. 희생자 형제자매가 자신의 부모나 다른 유가족 또는 생존학생들에게, 생존학생들이 부모나 다른 생존학생들, 유가족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묻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워서, 내가 울게 될까봐,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 힘들어보여서, 만나지 못해서 등 차마 묻지 못하는 질문들이 여러 얽힌 관계들 속에 놓여 있다. 주위 사람들이 이들이 무엇을 알고 싶고 묻고 싶은지를 살피고,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기록은 10대 피해자들이 궁금한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이자 내용을 담을 수 있다.

- 참사를 겪고 있는 10대 당사자들은 비청소년들의 상황,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의 부모, 친구의 부모, 세월호 참사의 다른 피해자들이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같이 힘들

¹ 2015,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416 인권실태조사단 참고.

다. 보이고 싶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안 듣게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다. 비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하거나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해에 필요한 정보와 설명이 필요하다. 기존의 재난참사 피해자 연구에서도 사고와 이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은 잠재적 외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참사의 피해자가 아닌 이들의 또래친구들, 선후배들,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어서, 상처받거나 반복되는 얘기에 피로감을 느낄까봐, 부담스러워 할까봐 등 말을 하고 싶고 묻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 서로의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서로의 삶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록은 참사를 겪는 10대 당사자들과 이 사회의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3.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경험으로, 서사로, 의미로 구성된다.

1) 말할 수 있는 과정과 참여의 장의 구성, 그리고 자기결정권

- 피해자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언어를 갖는 것은 치유에 중요하다. 기존 재난참사 피해자 연구에 의하면 사건의 해석과 사건 이후 시간들의 의미구성 과정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그동안 10대 피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만 동의를 구하고 부모=청소년 동의로 보는 인식, 부모동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청소년 참여는 어렵다는 식의 접근, 개별적 화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 끼워놓기 경향이 있어 왔다. 참여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 일상적인 공유가 되지 못했다.

- 치유 프로그램이나 학교생활은 물론, 장례식 참여 등 애도의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이나 배.보상 문제 등 자신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나 사회적 장면으로부터도 10대 피해자들은 배제되어 왔다. 그동안 '어린 학생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넘어 '피해 당사자'이자 '사회적 화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한 무게를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10대 피해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은 채 사안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 끌어오는 비청소년들의 서사는 명분만을 앞세우는 경향이냐 태도이기도 했다. "학생들 학업에 지장을 준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간다, 축제를 할 수 없다" 등.

2) 10대 피해자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르거나 같게 경험하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과 주변을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지내온 '역동적인 삶과 성장의 시간'을 겪고 있다.

4. 청소년 인권의 관점을 담은 기록/활동

- 10대 피해자들은 '너 단원고 나왔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야?' 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고 살고 있고 살아야 할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평생 안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부모님 잘 챙겨주고 니네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 "부모님 힘들어하시니까 너희가 울어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를 돌보는 역할

로 자신을 위치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담 때문에 힘들기도 하다. 이들의 시간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돌봄을 받는 존재로만 보는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 “부모뿐 아니라 우리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10대 피해자들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부모의 아픔에 가려져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10대 피해자들은 친구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넘어, 국가의 무책임, 사회의 부조리함, 비참함, 진실의 은폐 등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겪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삶에 대한 다른 선택과 해석,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참사를 만들어낸 이 체제에서 살아왔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의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만들려는 생각과 결정을 하기도 한다.

- 기록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어떻게 만나냐가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작가가기록단은 당사자 존중을 위한 기록 원칙을 몇 가지 고민했다. 10대 피해자들이 이 기록 작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기록 참여, 인터뷰, 기록물, 출판, 공개 등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밟을 것, 책의 편집 방향, 출판 방식 등도 당사자들과 충분히 의논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 10대 피해자들이 말하기, 곧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사회와 시민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이 또 다시 폭력적인 경험을, 무력감을,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하여 사회적 말하기가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단지 기록한다는 것만으로 기록의 사회적 의미가 만들어지고 알려지지 않고 기록의 전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고민과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10대 피해자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들의 또래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세월호 세대를 보고, 듣고 만나며, 그들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날들

[지정토론2] 박성현 _안산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600일째 날이다. 그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2학년 몇반 000의 오빠, 누나, 언니, 형인 아이들을 빌라의 한 호에서 만나 웃고 떠든지도 일년이 조금 넘는 날이다. 우리는 이 곳을 <우리함께 공간>이라고 부르고, 상담없이, 치료없이, 먹고, 웃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울기도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원칙을 정했고, 그 원칙에 따라 주말과 평일 없이 자연스럽게 살고 살아내고 있다. 어느 날은 대가족의 언니나 누나 같다가 어느날은 이모나 엄마가 된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 때론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아이들을 만나 우리는 사회의 민낯을 보고, 그 아이들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가만히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말에 떠난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울고, 분노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본인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본인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부모님들은 이야기 했다. 부모님들이 사안이 어그러질까봐 혹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했던 이야기였을거라 이해하고, 동생 혹은 누나 오빠를 잃은 엄마, 아빠가 상처입을까 수궁하긴 했지만, 그 말에서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이내 곧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기자회견도 하

고, 본인들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향한 자기실천을 해오고는 있지만, 그날의 <가만히있으라>는 말을 잊을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만 잊어라]

우리함께 공간에는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떠난 아이들의 친구들도 온다. 고3 수험생을 지나면서 아이들은 봄바람이 불때, 친구의 생일에, 더운 여름날에도 친구가 생각난다. 자율학습을 하다 함께 중학교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생각나 눈물지었더랬다. 지나던 담임이 “유난스럽게 넌 왜그러냐?”고 묻더라. 이젠 그만 올라고.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도 방침이 더 이상 이 일로 시끄러워지는 걸 막으라고 했단다. 아이들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왜 자꾸 들춰내려 하나며 불편해 한다. 그리고 이야기 한다. “그만 잊어라”

[일베보다 더 상처를 주는 지인]

일베들이 올리는 댓글이 상처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저 미친놈 취급하면 된다. 그런데 지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을 사귄수가 없다. “8억이면 많이 받는거 아니야?”, “난 내가 웃길래 괜찮은줄 알았어.”, “유난스럽게 아직도 그러냐?”는 같은 교회 다니던 언니, 오빠 혹은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며 아이들은 점점 사람 만나는게 두렵다. 내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좋게 혹은 삼키고 갈지 몰라도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지인들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사람 사귀는게 두렵다. 겁이 난다. 그리고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다. 안전한 사람들로.....

[세월호 세대]

안산 세월호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중심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희망마을지원단>이 꾸려졌다. 이들이 향후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겼는데, 연구자가 이야기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산청소년들은 성숙해요. 어떤 설문이든 다 응하고,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요. 그리고 찬찬히 물어보면, ‘다 아는 언니, 오빠 였어요.’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세상을 봤고, 알았으며, 실망했다. 그리고 분명 저렇게 살면 안되는 어른들을 안다. 우리는 그 세월호 세대에게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론 아프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럽고, 우리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해]

아이들끼리의 카톡방이 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캘리그래피 수업을 하자 해놓고, 고1인 아이가 야간자율 때문에 못와서 아쉽다고 했더니 언니, 오빠들이 갑론을박이 열렸다. “너희 나이 때는 그런데 관심가지지 말고, 공부만 할 때야” 혹은 “무슨 소리냐. 내 적성이 무엇인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지.”한다. 아이들이 대가족의 형제 많은 집처럼 북적거리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것인지 아이들은 서로에게 서로를 이끌며 이야기하고 산다. 어른들 보다 더 지혜롭게 서로를 다독이고, 살아간다.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 우린 물어본적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왜 살아야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우린 그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글 자료3]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의 변화와 방향성 평가 -슬픔의 주인이 될 권리를 빼앗는 교육-

조영선 _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얼마전 ‘416이후 변한 것은 416교실뿐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은 적이 있다. 416이후 그렇게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모두가 부르짖었고,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없이 학생들의 교실만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였다.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이 변했을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무사했다’, ‘아무일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적어도 어떤 코스를 했는지라도 확인해야했기에 참사 6개월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을 찾아보았다.

교육부는 ▶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 재난 위험시설, 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 대학내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 등 평가 시행을 중요내용으로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이 사례는 정부, 특히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례 1 : 교육훈련] oo초등학교 3학년인 김oo양은 2015. 3월부터 학교근처 종합체육관에서 무료로 수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릴 때 잠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지만 물에 빠졌을 때 나오는 법, 친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에는 학교에 안전체험버스가 와서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1~2학년때부터 수업시간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배워 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불을 꺼보는 체험도 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사례 2 : 교원] oo교육대학교 1학년인 이oo군은 2016. 5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다. 이 교육은 교사 자격증 취득 시 반영되는 교육이다.

즉, “학생과 교사들이 ‘수영교육’과 같은 생존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라서 체험위주의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희생된 교사와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능력자가 된다. 컨트롤 타워, 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이유도 모른채 구조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수장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수영교육이나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받으라 한다. ‘국가는 없었고 이제는 각자도생해야한다’는 참사의 교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에 ‘안전교과’를 신설하여 수업시수가 1시간이나 순증되었다. ‘안전’을 ‘학습’하기 위해 학교에 주당 1시간씩 더 ‘가만히 있으라’하는 것이다.

12.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지원

121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단원고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구축 운영
안산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122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 운영과 백서 제작
지역 주민,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이것은 참사의 현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산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상담과 치유’이다. 진실 규명의 실체에 접근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교육청의 사업은 추모 모드이다. 정혜신은 이 문제가 외부의 명확한 사건으로 발생한 트라우마인 만큼 ‘진상규명없이 온전한 치유도, 살 길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진상규명으로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현장인 교실을 없애고, ‘추모관’으로 옮기려는 시도만 보더라도 국가 개조를 외치던 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또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월에 1주년을 추모하며 ‘안전과 인권’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학교별로 이러한 토론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 인권은 학생의 권리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사회란 그저 살아있기만 한, 목숨만을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개개인이 안전한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학생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송원초등학교(교장 김윤숙)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송원 안전인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며 ‘안전은 우리 학생의 권리다. 교육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학급토론 및 의견 수렴의 기간 동안(4월 7일~4월 15일) 학생들은 학교생활 주변의 안전요소를 중심으로 직접 체감한 생활 속의 문제점을 학급에서 자유롭게 토의하였다. (중략) 그저 뉴스 기사를 보며 눈물 흘리는 애도가 아닌 가슴 아팠던 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애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학교 주변 안전요소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재난안전/폭력 신변 안전/약물 오남용/인터넷 중독 예방/응급처치/생활안전 이 중에 직접 체감하여 토론한 것이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스스로 약물과 컴퓨터 중독을 조절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 또 조심하자는 것, 그래도 혹시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응급처치나 수영등의 생존기술을 익혀 두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애도였을까? 이러한 토론 속에서 교사든 학생이든 슬픔의 주인이 아니라 객체로 전락한다. 사건도 슬픈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그 사건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했을까를 계속 되짚으며 자책한다. 실제 세월호 참사 직후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나온 글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미안해’라는 말도 있었다. 사건에 대한 의문을 감추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개인적으로 슬픔만을 표현하도록 틀 지워진 애도안에서만 허락받는 애도는 슬픔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슬픔의 주인이 될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로만 둔갑하고, 제대로 보호받기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생존술을 익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정말 사회적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토론회라면 학생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졌던 의문, ‘왜 구하지 않았을까?’, ‘왜 선장은 무책임했을까?’, 참사 1년후 ‘우리 사회는 무슨 책임을 저왔나?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야하지 않았을까? 슬픔인지 찝찝함인지 답답함인지 불신감인지 모를 감정들에 대해 솔직히 토로하고,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쫓 빼놓은 채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약물 오남용과 인터넷 중독을 안전요소로 지목하면서 학생을 대상화하고, 안전을 위한 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을 전체로 ‘토론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학교 건물의 균열로 인한 위험을 교육청에 알린 학생을 징계하려고 학교가 시도했었던 사건은 학생들이 영원히 안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당국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거나 말도 안되는 토론회를 열면서 진상규명을 피해가고 피해자를 무력화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당국이 뭔가 했다는 코스프레이거나 알리바이 쌓기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제대로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재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가만히 대기해주시오’는 사실 별 문제 없는 발언이었을 수 있다. ‘가만히 있으라’에 분노하는 이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시스템이 없는 것’을 ‘실제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채’(방송을 한 승무원도 몰랐을 것이다) 알 권도 없는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시스템의 부재가 일찍 인지되었더라면 더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의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만히 있으라’에 대한 교육적 반성은 ‘각자 도생’을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없는 것’을 ‘권한 없는 사람’을 통해 대신 짐지우고 숨어버리는 권력을 무너뜨리고,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 방법을 익힐까 이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는 교사마다 다른 예의에 따라 별점을 받고,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다 손부채질을 하면 별점을 받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들이 허락한 안전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과 학생들을 진짜로 위협하는 위험요소,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입시 경쟁과 해고 위협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어버리는 숨막히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지정토론3] 이누리 _무지개빛 청개구리, 중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이누리라고 합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가 변한 점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까지도 크게 변한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니 몇 가지 정도가 생각났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로 체험하러 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가는 길목 곳곳에 선생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동할 때조차도 끊임 없이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을 몇 시간이고 똑같은 장소를 지키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월호 이후 학교에서 내세운 대안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조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교육 당국에서 세월호에 대한 대안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학교 수업을 빠지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었는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서 정규 교과목의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선생님들도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느라 고생하셔야 했고 학생들도 빠른 진도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하느라 미처 하지 못한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공부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된 안전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처럼 효과적이지도 않고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대안을 학생들에게 밀어 붙이며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세월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청소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대안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자료4]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 – 함께 시민-되기/하기

미류 _ 4.16연대 운영위원, 인권선언 제정특위

1. 들어가며_세월호 참사와 ‘아이들’

○ 세월호 참사는 무엇이었나. ‘아이들’의 죽음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죽음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슬픔과 비통함, 당혹스러움과 분노, 무언가 산산이 조각나는 느낌, 이 마음들은 모두 무엇이었나.

○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이 고루 조명되지 못하고 ‘아이들’만 부각될 때 불편했다. 평등한 애도란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나조차도 ‘아이들’의 죽음이 더 아팠다. 재난을 겪은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를 잃는 것은 과거를 잃는 것이고 자식을 잃는 것은 미래를 잃는 것”이라는 말을 봤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미래를 함께 잃은 것일까.

○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아니 꼭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다. 어떤 미안함, 어떤 책임감이 사람들을 감쌌다. 희생학생의 부모들도 말했다. 지켜주지 못한 죄.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에게만 묻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에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 참사 이후로도 정부는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우리의 책임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때 아직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미안함은 자리를 찾지 않을까.

○ 4.16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시작이었던 1차 전체회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된 풀뿌리토론에서는 ‘청소년’에 주목한, ‘청소년’의 시선으로 제안된 권리들은 많지 않았다. 물론 모든 권리는 모두의 것이므로 청소년의 것이기도 하다. 다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한국사회 교육의 문제점, 청소년의 현실에 한 마디씩 보탬이 될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나갈 길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2. 존중_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할 때 나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

○ 청소년의 권리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의 권리를 말하기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유다. 어떻게 차별 받는지, 어떻게 억압당하는지 말하기는 쉬우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수많은 소수자들은 늘 말해왔다. 그러나 사회는 그냥 서로 ‘존중’하자고 대답한다. 존중은 인간의 존엄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에 이르기 전의 예의나 도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되바라진 청소년, 겁 없는 여성‘도’ 존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갇혀버린다.

○ 희생학생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요. 시신 상태가 어땠는지... 장례식장에서 계속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님 잘 챙겨야 한다, 돌봐드려야 한다.” 누군가는 피해자인데도 다른 위치로 내몰린다. 상실과 애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너희들이 더 나와서 싸워야지. 부모님들 지치는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은 분담하라고 한다. 누구에게도 내키지 않는 위치로 지정당하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 ‘세월호 세대’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세월호 참사를 고등학생 또는 또래의 위치에서 겪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우리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가깝던 무렵 한 고등학생이 꺼낸 말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쓴 글을 보더라도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각자 느낀 감정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었다. 4월 16일 그날을 말하는 서사는 청소년의 것, 여성의 것, 장애인의 것이 따로 있지 않다. 모두가 뭐라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 버무러진 감정을 겪었고, 정부에 대한 실망~분노, 언론에 대한 당혹~불신을 느꼈다. 그러나 또래로서 느끼는 무언가가 없지는 않다. 각자의 위치에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존중은 기본이자 전부다. 어쩌면 우리는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예의나 도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의 근원을 짚어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아이들’로, 어른이 ‘어른’으로 위치 지어지고 규정되는 조건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이 서로를 존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평등을 가로막는지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친절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청소년은 그저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규정하기 전에 나를 규정하는 이름들, 내가 스스로 말하기 전에 나를 듣는 말들, 내가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내게 먼저 전해지는 피드백...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각자 권리의 주체로서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존중해야 하는 사람과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

3. 보호_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그리고 요구하기

○ 세월호 참사 이후 일선 학교들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가 보류되었다. 학생의 의견을 모아 그렇게 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은 아닐까. 풀뿌리토론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라고 밝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인권교육을 하는데, 이 사회가 아무 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 교육하기가 미안하더라.” 어떤 권리를 함께 말하고 배워야 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 아이들에게만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집단이 있다. 문제는 집단의 특성이 아니다.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조건이 문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출발선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보호라는 인식에 길들여져 있다. 그것은 해당 집단의 취약한 점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몸이 약하다거나, 판단이 느리다거나 등등. 그래서 무언가 대신 해주는 것이 보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그/녀들이 동등한 권리주체로 역량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녀들이 못 걷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이유 역시 그/녀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각자의 책임으로 미뤄버린다. 함께 책임지는 방법을 모르니 누군가는 ‘지켜주지 못한’ 위치에 스스로를 놓게 된다. ‘아이들’을 무시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특히 엄마, 교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위치로 내몰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나도 일본어 교사다. 희생 교사 중에 일본어 교사가 있더라. 내가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갈 때 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당혹스러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면 많은 ‘어른’들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청소년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실현되는 만큼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 우리는 세월호의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어쩌면 사람들이 본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현실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붙든 그/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인지를 살피는 것이 4.16운동의 과제는 아닐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말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탐문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저항하고….

○ 동료를 얻기 어려운, 누군가를 만나고 모으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별로 없는,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세월호의 ‘아이들’은 아닐까. 어쩌면 어른들은 ‘아이들’을 염려하는 만큼 자신의 조건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나는 우리는 안전한가?

4. 미래_‘아이들’의 미래는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다

○ 청소년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담론 중 하나는 그/녀들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존재로 보는 시선이다. ‘미성숙’이 대표적이다. ‘꽃다운’ 아이들 ‘피지도 못하고’ 스러졌다는 안타까움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어른들만의 것은 아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될까 두려워.”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청소년들이 종종 하는 얘기다. 청소년은 현재적 권리 주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예비 주체로 흔히 여겨진다. 사회가 어떤 집단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까.

○ “친구들과 나 자신에게 바랍니다. 무조건 순응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학생도 신념과 가치관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반항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순응하지 말고 어른과는 다른... 우리들만의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미래에 표출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고등학생의 글이다. 그런데 ‘신념과 가치관을 가질 자격이 있는’ 학생은 왜 ‘생각과 신념을 미래에 표출해야 될 날’을 기다리게 될까. 미래를 기다리는 그/녀들의 시간은 생각과 신념을 현재에 표출할 수 있는 누군가의 과거일 뿐일까.

○ 표출할 미래는 청소년이 유보된 존재라서가 아니다. 스스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기다리고 들어주는, 표출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갖추게 될 때 주체가 될 수 있다. 4.16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한 풀뿌리 토론에서 제안된 권리 중에는 표현의 자유나 소통에 대한 권리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권리들은 그냥 혼자 떠들 자유와는 다르다. 나이, 성별, 직급에 따라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도가 다르고, 토론을 하려면 돈/시간/정보가 필요한데 저마다 접근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다.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부모의 허락을 구해야 하거나 차비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는 동등하게 만나기 어렵다. 이것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다.

○ ‘세월호 세대’는 특정 나이대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침몰하는 한국 사회를 간파하게 된 사람들,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사람들,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변화를 일구는 데에 동참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세월호 세대다. 세대론의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현실을 서술하고, ‘세대’의 주관적 의지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 세대의 주관적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바꿔야 하는 세상은 특정 세대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찾아갈 때 세상도 바뀔 수 있다.

5. 나가며_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동료 시민 되기/하기

○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른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셨죠?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책임감을 좀 더 가져 주세요. 우리나라에 어른다운 어른이 많이 없다는 것이 슬퍼요.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게 당신들이잖아요.” 앞에서 인용한 고등학생의 글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것은 어른들에 대한 신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참사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어른들’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지켜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어른들의 책임을 깨달으라고 요구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적한다. 이것은 청소년과 ‘어른들’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권력을 가진 자, 더 배제되는 자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이기도 하다.

○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에게서 우리를 보았듯,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다짐이어야 할지 청소년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 청소년의 권리로부터 세월호 참사를 되짚어보고 4.16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의제로 다루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정치적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모색하면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전망을 열어줄 것이다. 진실과 안전, 정의, 치유와 회복을 청소년의 권리로 다시 말하기만 해봐도 더 보이는 것들이 있다. 집회 나오는 데에도 부모 허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모순은, 직장 상사나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집회 한 번 나오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 우리가 동료 시민이 될 때, 우리를 위계화하는 체제는 이미 문제로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시민 하기를 감행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한국사회는 고장난 자전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토론4] 김진곤 _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는 세월호 작은 마을에서 무참히 버려지고 남겨져서 하늘나라 천사가 되어 버린 수백 명의 청소년을 가슴에 사무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면서 저의 무능과 한국사회의 무능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외친 한국사회, 아니 정확히 말해 기성세대의 가르침에 우리의 청소년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들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의 희망이다..왜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어야만 할까요.

발제문처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기에,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와 함께 지

역을 만들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대한민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거나 사회의 주요 담론의 논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으라 외친 세월호에 의해, 한국사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친구들을 위해 추모하고, 주장하고, 행동할 권리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청소년들의 뜨거운 외침을 경청하고, 돌아보고, 함께 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이들 청소년이 추모하고, 주장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사회적 약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청소년들을 그들의 생활세계 문제에서 방관자가 되거나,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 순응하면서 따라오던 존재로 보던 기존의 청소년상을 전복시키는 한국사회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의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모든 말에 “왜”라는 답을 한국사회에, 기성세대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수동적인 대상자로서 청소년상을 버리고 모든 질문의 주체로 청소년을 세우고 그들의 선택을 중심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지정토론5] 오지숙 _ 4.16연대 공감위원회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주체인 청소년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에게 더욱 요구된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안내방송이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기회를 앗아간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참사 이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세월호 참사로 동생을 잃은 한 대학생이 사고 1년 4개월만에 처음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평소에 안면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현지에서 우연히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니 저간의 사정을 말하며 지난해에는 고3이라고 엄마가 못오게 했다고 하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추모할 자유, 아파할 자유조차 빼앗은 것은 아니었을까?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성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몫이라면 자신들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은 청소년의 몫이다.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년제 대안학교인 오디세이 학교에 ‘세월호참사와 1인시위’에 대해 강의를 했다. 두 시간의 강의 중 첫시간은 나의 1인시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두번째 시간은 학생들에게 직접 본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피켓으로 만들어서 거리에 나아가 시위를 하게 했다. 학생들은 세월호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아르바이트 문제를 이슈로 ‘시급인상 시급하다’라는 기발한 문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영화비 내려달라’는 문구도 있었고, ‘금연구역에서 왜 피우세요?’라는 문구도 있었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면서는 떨려하기도 했지만 막상 시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뿌듯하다는 것이 총평이었다.

본인들이 평소 고민하던 것들,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회를 향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보면 더 많은 생각과 에너지들이 모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인권에 관해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행동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